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2:21~29)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며 회개해야 할 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는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1.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징계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돌아키지 않으면 사단의 송사에 의해 징계가 임합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임한 것처럼 처음부터 혹독한 징계가 아니라 가벼운 징계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탄식하시므로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곤고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신호를 보내 주시며,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상하고, 가족이나 직장,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는 징계하여 돌아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히 12:8).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신속히 돌아켜야 합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 주십니다.

2.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일반적으로 침상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포근함을 주지만, 여기서는 이세벨이 가증한 일을 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도 돌아키지 않는 사람들을 큰 시험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곧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편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라고 불평하

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잠시 동안 악인이 행통하게 보이고 침상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보인다 해도 정해진 공의의 선을 넘으면 순식간에 심판이 임합니다(시 37:1~10).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행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던져지므로 결코 행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칭 이세벨의 침상이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므로 미혹되어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최후의 징계를 의미하고, 살아서 주님의 강림의 때를 맞는 사람에게서는 7년 대환난에 떨어질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3.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나…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로 갚아 주리라

이세벨과 같이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거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임할 징계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꼭 자녀에게 임한다는 뜻은 아니며 남편이나 아내 등 다른 가족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고, 혹은 생활고나 질병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은 물론,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꿈을 통해 알려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잠 15:3 시 139:1~4).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언행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 깊은 중심까지 밝히 아십니다. 순간에 감정을 품고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작은 선행도 심판 날에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벧전 3:10~12).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세벨의 교훈을 좇아 범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4.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